

일본 교토 高山寺의 원효에마키(元曉繪卷)

| 이승희 홍익대학교 |

2015년 양산시립박물관의 천성산 특별전시에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에 관한 매우 의미 깊은 작품이 전시된다.¹ 일본 교토의 외곽에 위치한 코산지(高山寺)에 전래되고 있는 〈華嚴宗祖師繪卷〉(혹은 〈華嚴緣起繪卷〉)는 신라의 원효대사(617~686)와 의상대사(625~702)의 주요 일대기를 그린 두루마리 그림(繪卷)이다. 이 중 〈원효에마키(元曉繪卷)〉가 실제 크기로 轉寫되어 전권이 펼쳐져 공개된다. 〈원효에마키〉는 가마쿠라시대인 13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원효의 독자적인 불교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라의 화엄사상이 일본 불교문화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코산지는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와 함께 일본의 화엄종을 대표하는 양대 사찰 중 하나이다.² 가마쿠라시대에 도다이지에서는 교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코산지에서는 실천적인 수행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했다. 코산지의 부흥을 이끈 묘에쇼닌(明惠上人, 1173~1232)은 신라의 화엄종승인 원효와 의상의 화엄사상에 깊이 동조하며 그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흠모의 마음을 두루마리 그림에 표현하였다. 일본에서 에마키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그림은 일본의 전통문화가 성숙하던 헤이안 후기에 발생하여 설화, 고승 및 사찰의 緣起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널리 조성되었다.³ 에마키는 고토바가키(詞書)라하여 스토리를 적고 그 내용에 따른 회화를 묘사하여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스토리를 먼저 읽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원효에마키〉는 모두 3권으로 북송의 승려인 贊寧(919~1001)이 저술한 『宋高僧傳』의 「원효전」 및 「의상전」의 본문을 토대로 묘에쇼닌이 문장(고토바가키)을

1 양산시립박물관이 주최하는 ‘양산이 품은 명산, 천성산’은 10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4일까지 개최된다.

2 이행구, 「日本 華嚴의 源流 再考」, 『논문집』 5(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986), pp. 7-22.

3 『繪卷物』, 『繪卷と肖像畫-日本美術全集』 10, 1969.9(1989.12, 10쇄), pp. 132-146.

구성하여 쓰고⁴ 그 내용에 호응하여 조닌(成忍)이 그림을 그렸다.⁵ 묘예쇼닌은 원효의 출생부터 입적까지의 전 생애를 표현하기 보다는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의 유학을 포기한 이야기, 원효의 수행과 자유분방한 중생제도에 관한 이야기, 『金剛三昧經』의 논소를 저술하여 왕비의 병을 치료했다는 원효 일생의 핵심적인 3가지의 이야기를 부각시켰다. 특히 원효와 의상이 당 유학을 떠난 길에 당향성의 한 무덤에서 흥포한 형상의 귀신 꿈을 꾸면서 ‘唯心’의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이지만 자유무애한 교화와 수행을 하며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렸던 그의 행적이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金剛三昧經論』을 저술하여 중병에 걸린 문무왕비의 병을 고치게 된 緣起를 그린 부분이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위에 특명을 받은 척사가 큰 배를 타고 당으로 향하는 길에 용왕의 사자를 만나 용궁으로 가서 黔海大龍王에게 경전을 받아온 이야기, 市井을 무대로 활동하던 대안성자가 『金剛三昧經』을 분류하고 원효가 주석을 하였으나 도둑맞은 이야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얻어 다시 저술하여 무사히 범회를 열어 왕비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등이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한 채 표현되어 있다. 특히 시정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묘사한 부분이 매우 재미있다. 음식과 布를 팔고 있는 상점에서 흥정을 하고 있는 사람, 산양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하는 남자와 커다란 돼지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남자, 시장판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남자와 말리는 남자의 모습 등은 당시의 일상 생활을 그린 풍속화로서 손색이 없다. 고또바가끼 외에도 각 장면에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적어 극적인 상황과 예기치 못한 주변인들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게 해 흥미를 유발시킨다.

〈원효에마키〉는 묘예쇼닌의 말년인 1228년 즈음부터 입적하는 1232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묘예쇼닌이 원효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일본 화업의 전통이 중국보다는 신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화업학의 開祖로 모셔지는 審祥大德은 원효를 비롯한 신라 승려들의 불서를 일본에 전래시켰으며⁶

4 『宋高僧傳』卷4, 『新羅國黃龍寺元曉傳』, 『新羅國義湘傳』.

5 가나자와 히로시(金澤洪), 『華嚴宗祖師繪傳 成立の背景と畫風』, 『華嚴宗祖師會傳(華嚴緣起)-日本繪卷大成』 17(中央公論社, 1978).

6 天平年間(729~749)에 나라의 大安寺에 머물며 활동하였는데 740년에는 金鐘寺에서 화엄경을 연구하며 강설하여 도다이지의 사상적 창건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임중, 『元曉大師와 明惠上人』, 『(일본국보)화엄연구 연구: 원효와 의상의 행적』(보고사, 2015), pp. 83-85.

〈원효에마키〉에 연기설화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金剛三昧經論』이 8세기 일본 사회에 널리 읽혀졌다는 사실은 『續日本記』에서도 확인된다.⁷ 또한 자유분방한 원효의 포교행은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힘을 결집한 교키(行基, 668~749)집단에 영향을 미쳤다.⁸ 이후 헤이안 시대에는 원효를 화엄종의 高祖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정토진종의 창시자인 호넨(法然, 1133~1212)도 원효를 화엄종의 祖師로서 기록하고 있어 8세기 경 정립된 원효의 위상은 13세기까지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묘에쇼닌은 일생동안 원효의 삶과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 깊은 흥미와 동경을 보여주었다. 그가 코산지에 주석하기 전 운둔생활을 하며 수행했던 그의 고향 기슈(紀州)에서 원효가 무덤에서 귀신 꿈을 꾸고 깨달았던 유심의 깨달음을 얻었다. 기슈에서 생활하던 시기의 정취는 〈원효에마키〉에 달을 보고 있는 원효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다. 묘에쇼닌의 행적에서는 원효의 삶에 동조하고 닮고 싶어했던 마음이 다수 보인다. 석가의 고향인 인도의 유학을 두 번이나 시도하였으나 포기한 점(원효는 두 번의 당유학을 시도), 『夢記』를 적어 꿈을 통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수행과 깨달음의 해법을 찾고자 했던 점 등이다.

묘에가 원효를 향한 동경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는 말년에 그가 저술한 『光明眞言土沙加持勸進記』(이하 『勸進記』, 1228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말년에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에 주력하였는데, 현대에는 논쟁이 있지만 당시의 묘에가 원효의 진찬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遊心安樂道』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遊心安樂道』는 원효가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대중교화행과 그의 실천적인 측면에 근간을 둔 정토왕생신앙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효는 ‘정토의 깊은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하는 것이지 보살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三惡道에 떨어진 사람도 방편을 쓴다면 망령된 영혼을 구제하고 업장을 없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편은 보리류지가 번역한 『不空罽索神變眞言經』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⁰ 즉 大灌頂光眞言을 외고 주문에 의해 加持된 土砂(土沙加持)를 죽은 자의 시체나 무덤에 뿌려주면 범부는 물론이고 생전에 십악오역의 죄를 범한 자도 죄업이 소멸되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續日本記』 5.

8 다무라 엔초(田村圓澄), 『古代朝鮮과 日本佛教』(講談社, 1993), pp. 156-157.

9 김임중, 「『華嚴緣起』의 成立과 배경」, 앞의 책, p. 31에서 주 23) 24) 재인용.

10 『遊心安樂道』, 「解妨除疑」, 『大正藏』, 권47.

묘예가 원효에 의한 정토왕생방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220년경 부터로 약 7년 동안 광명진언과 토사가지법에 관한 저서를 5권이나 저술하였으며 실제로 1228년 9월부터는 광명진언의 토사가지법을 수행하여 정토신앙과 실천행을 대중화시켰다.¹¹ 『勸進記』에 실린 원효의 전기는 〈원효에마끼〉의 고토바가끼와도 거의 일치하여 〈원효에마끼〉의 제작시기가 그의 말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¹²

〈원효에마끼〉를 그린 조닌(成忍)은 상당한 기량을 갖춘 화가로서,¹³ 묘예와 함께 코산지에서 생활하며 불화를 그렸던 화승이었다. 조닌이 그린 〈원효에마끼〉에는 묘예와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원효를 깊이 흠모하고 그의 자취를 따라갔던 묘예의 정신세계를 깊이 이해했던 화가이자 동료로서의 면모가 담겨져 있다.

묘예쇼닌은 교학적인 연구보다는 실천적 수행과 대중교화, 그리고 말년의 정토행 등을 통해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였던 승려이다. 〈원효에마끼〉는 묘예의 종교적 목표와 신앙생활 등에 신라의 화엄승인 원효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 불교사상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11 김임중, 「명혜에 있어서 광명진언토사가지의 수용」, 앞의 책, pp. 176-178.

12 『권진기』의 원효그림 문장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권진기』의 구상이 있고 난 후에 〈원효에마끼〉의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나자와 히로시(金澤洪), 앞의 논문, pp. 83-84. 김임중, 「華嚴緣起의 成立과 배경」, 앞의 책, p. 35.

13 미나코토 도요무네(源豐宗), 「明恵上人の 畫像과 그 필자에 관해서」, 『日本美術史論究』 4(思文閣出版, 1982), pp. 494-496. 가메다 쓰토무(亀田孜), 「華嚴緣起について」, 『華嚴緣起-日本繪卷全集』 8(角川書店, 1976), p. 12.